

## [01. 품사, 문장성분 그리고 문장의 형식 (1~3형식)]

이번 시간에는 문장을 이루는 구성요소인 '문장의 성분'을 공부할 것이다. 또한 각 문장의 성분을 이루는 '품사'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문장성분을 배열한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오늘은 1형식~3형식 문장을 공부하겠다.

### [문장성분]

#### •주어(s): 문장에서 주인공의 역할이 되어서 문장의 주체가 된다.

주로 끝 부분이 -은/는 또는 -이(가)로 끝난다. 하지만 이것은 처음에 주어의 역할을 쉽게 발견하려고 얘기해주는 것이지 무조건 공식처럼 외우면 안 된다. 밑에 나오는 것들도 마찬가지이다.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각 문장성분의 역할과 성질, 그리고 쓰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동사: 주어의 행위나 상태를 나타냄.

I play the computer game every day.

↳나는 컴퓨터 게임을 매일 한다.

I will go camping tomorrow.

↳나는 내일 캠핑을 갈 것이다.

동사 부분에 밑줄을 쳐놓았다. 두 문장에서 동사는 각각 'play', 'will go'이다. 동사는 대부분 동작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이 경우에는 주로 끝 부분이 '-하다' 이다.

그러나 종종 I feel happy. 나 I am a student. 처럼 주어의 상태나 동격을 나타내는 성격을 가지는 2형식 문장의 주어와 보어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로 쓰이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be동사가 많이 쓰이는데 be동사는 주로 끝 부분이 '-이다'로 해석된다.

#### •목적어(o):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의 대상을 목적어라고 한다.

He like pizza. 이 문장에서 pizza는 he가 좋아하는 대상이다. 이러한 것을 목적어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주로 '-을/를'로 해석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어의 문장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면 목적어는 동사의 행위의 대상이라는 것을 유념하면서 목적어를 찾아야한다. '~에게' 같은 것도 목적어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영어의문장

### [주어, 동사, 목적어 정리]

I like him.에서 I는 동사 like의 주체인 주어가 되는 것이고, him은 목적어로 '나'가 좋아하는 대상, 즉 동사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이다.

## •보어(c)

①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 특성 등을 각각 동사 뒤(주격보어) 또는 목적어 뒤(목적격보어)에서 보충 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주격보어] This Ice Cream is too sweet. 이 아이스크림은 너무 달다.  
→너무 단 것은 아이스크림의 상태를 나타낸다.

[목적격보어] My favorite singer's concert/ makes/ me/ happy.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는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 ②동격을 나타내기도 한다.

[동격] Korean capital is Seoul.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우리나라의 수도=서울  
즉 똑같은 대상이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나라의 수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위의 문장을 썼다고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이를 동격이라고 한다.

•수식어(m):문장에서 주어나 동사, 목적어, 보어와 같은 필수문장성분이나 문장 전체 꾸며주는 문장성분이다. 앞서 설명한 4개의 문장성분과는 달리 필수 문장성분은 아니다.

수식어는 문장 내에서 다른 문장성분 또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거나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보어도 보충설명을 하는 역할을 하지만 수식어는 "He sings well.-그는 노래를 '잘' 부른다" 와 같이 수식어인 well이 없어도 문장의 형식을 유지하는 것이 보어와의 차이점이다. 그리고 보어는 주격보어, 목적격 보어로 각각 주어와 목적어를 보충설명 해주지만, 수식어는 모든 문장성분을 꾸며줄 수 있는것도 수식어와 보어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명사를 꾸며주면 형용사적 수식어,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나 문장 혹은 절을 꾸며주는 부사적 수식어가 있다.

## [품사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번 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중요한 개념은 문장의 형식이다. 하지만 문장의 형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편의 도입 부분에서 서술했듯이 문장성분과 품사를 알아본 후,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공부 하려고 하는 것이다. 앞서 문장 성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각 문장성분에 들어갈 수 있는 재료가 정해져 있는데, 그 재료가 지금 설명할 **품사**이다. 따라서 품사와 문장성분은 헛갈릴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개념을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위 밑줄 친 문장을 기억하면 두 개념이 덜 헷갈릴 것이라고 본다. 아래에 있는 내용은 각 문장성분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를 기억한 것이다. 이 부분을 보면 문장성분과 품사는 따로 노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 주어(s)-명사, 대명사, 명사절이나 명사구
- ▶ 동사(v)-동사
- ▶ 목적어(o)-명사, 대명사, 명사절이나 명사구
- ▶ 보어(c)-명사, 대명사, 명사절이나 명사구, 형용사
- ▶ 수식어(m)-부사, 부사절이나 부사구
- ▶ 이 밖에도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가 있다.

그럼 이제 품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 [8품사]

**※명사:**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말이다. 주어, 목적어, 보어에서 쓰인다.

Korea Capital is Seoul.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The test was hard.

그 시험은 어려웠다.

The teacher helped me to study.

그 선생님은 내가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명사 부분을 밑줄로 표시했다. 위 두 문장에서 명사는 모두 어떠한 대상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문장의 중심이 되는 주어의 역할로 쓰이기도 하고, 주어의 동격을 서술하거나 주어의 상태를 서술해 줄 때 쓰이기도 한다. 또한 그 선생님은 나를(내가)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와 같이 선생님이 도움을 주는 대상인 목적어 'me'가 있고, 목적어 'me'를 어떻게 도와줬는지 설명하기 위한 목적격 보어인 'to study'가 있다. 참고로 이 문장에서 쓰인 to study는 동사를 명사처럼 써주기 위해서 준동사인 'to부정사' 라는 형태로 바꾸어 써준 명사이다. 즉,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다. 이러한 것도 명사종류에 해당한다.

**※동사:** 동작을 나타내는 품사. 문장성분으로서의 동사와 유사한 개념이다.

**※대명사:** 여러 문장을 중에서 앞 문장에 나온 명사와 같은 대상을 표현할 때에 반복되는 명사 대신해서 써주는 품사이다.

'제임스는 나의 친구다. 제임스는 수학공부를 잘한다.' 와 같이 반복되는 명사가 있을 때 두

번째 문장의 명사에 대명사를 써주는 것이다. 명사보다 큰 범주라고 생각하면 된다. 위 경우에는 대명사로 he를 쓴다. 대명사를 쉽게 설명하면, '가리키는 말' 이라고 할 수 있다. '제임스는 나의 친구다. 제임스는 수학교공부를 잘한다.' 이 부분에서 두 번째 문장에 해당되는 '제임스는 수학교공부를 잘한다.'의 주어인 제임스를 he로 바꿀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대명사의 쓰임의 예시인데, 두 번째 문장의 주어인 he는 앞 문장의 주어인 제임스를 가리키기 때문에 대명사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대명사의 종류로는 it, he, this, that 등이 있다.

**※형용사:** 명사를 꾸며주는 말로, 명사의 상태나 특성을 서술할 때 쓰인다.

**※부사:** 부사도 다른 품사를 꾸며주는 말인데, 명사만을 꾸밀 수 있는 형용사와 달리,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와 절, 그리고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 있다. 다른 부사도 꾸밀 수도 있다. He runs very fast. 처럼 한 문장에 여러 개의 부사를 쓸 수도 있다.

**※접속사:** 두 개 이상의 대상을 한 문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쓰인다.

**※전치사:** 전치사는 무조건 명사 앞에서 명사와 같이 쓰인다. 단독으로 쓰거나 동사나 형용사 등 다른 품사와 같이 쓸 수 없다. 여기서 명사는 명사 종류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명사, 명사구, 명사절 모두 포함된다. 주로 시간, 위치 등을 가리킬 때 많이 쓴다. 예시)at school, in my house 등

**※감탄사:** 감탄사는 wow등과 같이 기쁜 일에만 쓰일 것 같지만 화나거나 슬플 때 등 모든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품사이다. wow처럼 감탄사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고, 참 아름답구나!를 나타내는 How beautiful it is!처럼 문장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때 문장은 감탄문이다.

## [문장의 형식]

이제 문장의 형식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적인 개념을 모두 살펴보았다. 영어 해석을 할 때는 끊어 읽기를 통해 문장 구조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긴 문장도 무리 없이 해석할 수 있다. 필자도 긴 문장을 해석하는 것은 어려워서 계속해서 문장구조 파악과 끊어 읽기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공부하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형식 역시 잘 숙지해야 한다.

# 1형식 문장

## 주어+동사

-He sings. 그는 노래한다.

S V

→[주어+동사] 세트는 문장의 최소 단위이다. 그래서 위 문장의 해석은 '그는 노래한다'로 해석된다. 해석의 허전한 감이 없지 않지만, 문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1형식 문장 중 대부분은 수식어와 함께 쓰인다. 'He sings well.'에서 well이 '잘'이라는 의미를 가진 품사로서는 부사이며, 문장성분으로서는 수식어에 해당한다. 하지만 모든 품사는 두 개 이상의 말을 붙여서 구 혹은 절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추후 공부를 할 때 수식어가 길다고 당황하면 안된다.

[예문]

1. They dance.
2. I study.
3. I study hard.
4. I go to school.
5. He runs.
6. She woke at 9a.m.
7. He goes to bed early every night.
8. The fan on the my desk works.
9. She goes to Gym.

[예문 해석]

1. 그들은 춤춘다.
2. 나는 공부한다.
3. 나는 열심히 공부한다.

★2번과 3번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3번에서는 부사인 '열심히'가 수식어로 쓰였어요. '열심히'를 지우면 2번과 똑같은 문장이 되죠? 바로 이것이 수식어의 특징이에요. 필수문장성분이 아니라 꼭 올 필요가 없다는 말 이에요.

4. 나는 학교에 간다.
5. 그는 뛰다.
6. 그녀는 아침 9시에 일어났다.

7. 그는 매일 밤 일찍 잠자리에 든다.
8. 내 책상 위에 있는 선풍기는 작동한다.
9. 그녀는 체육관에 다닌다.

지금까지는 문장의 필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1형식 문장을 보았다. 이제부터 살펴볼 2형식 문장부터 주어+동사는 무조건 들어간다. ‘주어, 동사 없으면 문장이 아니다’라고 알면 좋다. 1형식 문장에 또 다른 문장성분이 추가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번에는 1형식과 더불어서 2형식, 3형식 문장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 2형식 문장

주어+동사+주격보어

**※주격보어: 주어의 상태나 특성 등을 서술할 때 사용하는 문장성분이다.  
동사 뒤에서 주어를 보충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He is **a student**.      그는 학생(명사)+이다(동사).→그는 학생이다.  
→위 문장에서 명사인 a student가 보어에 해당한다. 그와 학생은 동일한 대상, 즉 동격이다. 그가 학생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주격)보어가 쓰인 것이다.

-The homework was **easy**.      그 숙제는 쉬운(형용사)+이었다(동사).→그 숙제는 쉬웠다.  
→위 문장에서 형용사인 easy가 (주격)보어에 해당한다. (주격)보어를 사용해서 숙제가 쉽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위 문장에서는 숙제의 특성 또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정리]** 이처럼 2형식 문장은 주어의 동격(he=student)이나 상태(easy) 등을 서술할 때 쓰인다. 2형식 문장에서 보어는 주어만을 보충 설명 해주는 문장성분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주어, 동사와 함께 **주격보어**가 온다.

또한 하나의 팁을 알려주자면, 순수한 be동사 뒤에 보어가 오는 경우에는 무조건 보어가 온다. 보어는 주어의 상태나 동격을 서술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위의 문장처럼 주로 ‘~이다’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첫 번째 문장에 대한 해석과 설명을 참고하면 이해가 수월할 것이다.

**[예문]**

1. He is angry,
2. I am happy.
3. I was sad yesterday.
4. The mountain is very high.
5. Today's dinner by mom was delicious.

6. Emily's performance was very good.

[예문 해석]

1. 그는 화가 나있다.
2. 나는 행복하다.
3. 나는 어제 슬펐다.
4. 그 산은 아주 높다.
5. 엄마의 오늘 저녁식사는 맛있었다.
6. Emily의 공연은 아주 좋았다.

### 3형식 문장 주어+동사+목적어

-I/ like/ him.                    나는 그를 좋아한다.

A: 나는 좋아해. (=I like.)

B: 무엇을 좋아해?

A: 몰라.

B: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

A: 음, B 너의 말도 맞는데 그래도 몰라.

B: 아 답답하네. 무작정 모른다고 하면 사람을 좋아하는지, 사물을 좋아하는지 전혀 감이 잡  
히지 않잖아ㅠㅠ

목적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위의 대화를 구성해보  
았다. 위의 대화처럼 I like. 라고만 말하면 I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정말 모른다. 뒤에 I가 무  
엇을 좋아하는지가 적혀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것도 보충설명을 할 때 쓰이는 보어인 것인가?  
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 I like 뒤에 들어가는 것은 목적어이다. 보어는 '주어'를 보충설명  
해 주었는데, 목적어는 주어의 동작 등을 서술하는 동사 뒤에서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의 대  
상을 서술하는 역할을 한다. I like pizza. 나는 피자를 좋아한다. 에서 '피자'는 I가 좋아하는  
대상이다. I want to be a teacher.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want: 원하다 라는 동사의 대  
상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또한 I want to be a teacher.을 직역하면 나는 원한다. 선생  
님이 되는 것을. 로 해석이 되지만 보통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로 해  
석한다. 이처럼 목적어가 무조건 '-을/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동사 want의 대상  
이기 때문에 목적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I like pizza. 나 I want to be a teacher.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두 문장에서 목  
적어는 모두 명사이다. 'famous: 유명한'과 같은 형용사가 동사 뒤에 오면 어색하다. 따라서

보어는 명사와 형용사가 올 수 있지만, **목적어는 오직 명사만** 올 수 있다.

즉 **3형식 문장에서 쓰이는 목적어**는 동사에 집중을 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2형식 문장에서 쓰이는 보어는 '주어'에 집중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 목적어의 쓰임과 역할을 아래 예문을 통해 확실히 이해하기를 바란다.

[예문]

1. Healthy activities include/ running, biking, swimming, and walking. [고졸 2020-1회]
2. I like/ travelling/ by train. [고졸 2020-1회]
3. I need a cell phone.
4. We will elect president.
5. I found a bad problem.

[예문 해석]

1. 건강한 활동들은 포함한다/ 달리기, 자전거타기, 수영 그리고 걷기를
2. 나는 좋아한다/ 여행하는 것을/ 기차로  
↳팁: by는 여러 가지 쓰임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by train처럼 뒤에 명사를 붙여서 교통수단과 같이 방법을 표현할 때 쓴다. 이것 외에도 '누구 혹은 무엇에 의해서'와 같은 표현을 할 때도 by 뒤에 명사를 붙여서 쓴다.
3. 나는 필요하다/ 휴대폰이  
→이 경우에는 목적어가 을/를이 아니라 '-이' 로 해석됐다. 그럼에도 동사의 행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목적어가 된다.
4. 우리는 대통령을 선출할 것이다.
5. 나는 하나의 나쁜 문제를 발견했다.  
→a bad problem이 목적어에 해당한다. 이 경우 하나의 단어가 아니다. 이런 것을 '목적어 구'라고 한다. 여기서 명사는 a problem인데 여기에 '나쁜'이라는 꾸밈요소를 넣어서 a bad problem이다. 즉 형용사와 명사가 같이 들어있어도 구나 절의 중심단어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며]** 이번 편에서는 문장성분과 품사에 대해 알아보고, 이 두 가지를 재료로 이용한 문장의 형식 중(中) 1형식~3형식 문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영어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끊어읽기 인데, 이 끊어읽기의 기초는 문장구조 파악에서부터 시작된다. 문장의 형식과 문장성분, 품사는 문장구조 파악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재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복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모르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책을 참고해서 추가로 공부하거나, 주변에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청하는 방법 등으로 이번 편에서 설명한 개념을 잘 이해하기를 바란다.